

가정어린이집교사의 부모참여 활동에 대한 교사의 인식 차이 연구*

이혜자** · 김갑순***

본 연구는 가정어린이집 교사의 부모참여 활동에 대한 인식 연구를 위해 부모참여 활동의 현황을 파악해 본 후, 부모참여 활동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알아보고, 교사의 일반적 배경에 따른 교사의 인식차이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서울시소재 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 314명의 응답결과를 최종 분석하였다. 도구는 조미영(2008)의 연구에 사용된 도구를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재구성하였다. 연구문제 분석을 위하여 SPSS WIN version20.0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으며,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한 빈도분석과 신뢰도 계수(Cronbach's)를 산출하였다. 문항 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구하였고, 부모참여활동 현황은 다중응답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사의 일반적 배경에 따른 부모참여 활동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고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경우, t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사의 일반적 배경에 따른 부모참여 활동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학력과 근무경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과목수강과 연수경험이 있는 경우 더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가정어린이집 교사는 부모참여 활동에 대한 교사 교육 및 연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한 교사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교사가 부모참여 활동에 대한 인식의 방향을 영아뿐 아니라 부모와 교사 자신까지 확대하고 능동적으로 변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가정어린이집, 부모참여활동, 보육교사

논문제출일: 2020. 1. 27. 최종심사일: 2020. 2. 21. 게재확정일: 2020. 3. 15.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아동복지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를 수정한 것임.

** 튼튼어린이집 원장

*** 세한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Corresponding Author: Kim, Kab Soon,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ehan University, Korea, E-mail: kks710kr@hanmail.ne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영아기는 성장과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신체, 인지, 언어 사회, 정서 등 모든 영역의 발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시기이며, 이때 부모는 최초의 양육자로서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가정환경은 영아가 출생 후 접하는 일차적 환경이며 최초의 경험을 갖게 하고, 부모는 가정환경의 주도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녀에게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교사다. 따라서 부모의 역할과 가정환경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성장으로 인해 부모의 기능 및 역할변화를 가져오게 했으며 부모는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면, 직장생활로 인해 영아를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부모는 친척이나 조부모에게 양육을 부탁하기도 하고 어린이집의 시설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에,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어린이집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어린이집의 보육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보육의 질 향상의 요구로 바뀌고 있다(주희경, 한유미, 2016). 이에, 보건복지부(2016)에서는 부모가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고자하는 보육정책으로 2015 ‘열린 어린이집’을 추진하였다. 부모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어린이집을 개방하는 열린어린이집 보육정책은 어린이집에서 부모교육 및 참여활동을 더욱 활성화 시키며 이를 통해서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3). 그 결과, 부모의 어린이집 참여활동은 다양하게 전환되어서, 기존의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은 가정에서 효과적으로 영아의 발달과 양육을 돕는 교육위주의 부모교육으로 수동적인 활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최근에는 부모가 점차로 어린이집을 모니터링하거나, 어린이집의 활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어린이집을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부모참여 활동으로 부모교육의 의미가 바뀌어 지고 있다(송효현, 2013). 부모참여 활동(parent involvement)이란 부모교육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부모와 함께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부모는 영아가 태어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틀을 제공해주며, 자녀발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고 했으며 여러 연구들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나 부모의 특성이 아동의 문제 행동과 관련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박진아, 이경숙, 신의진,

2009). 즉, 부모는 어린이집에서 영아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위한 동반자적관계에 있었다면, 이제는 자녀에 대한 일차적 책임자가 부모자신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자녀의 어린이집 활동에 동참해야 한다. 부모가 어린이집의 부모참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영아는 교사와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부모와의 상호관계가 질적으로 향상되어 영아자신과 보모를 존중하게 된다고 하였다(임현정, 2016). 한편, 교사는 이를 통해 부모로부터 교육적 지원과 이해를 구할 수 있고,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열성과 요구를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정어린이집의 특성 상 교사는 영아로부터 잠깐이라도 눈을 돌릴 틈이 없으며 그럴 경우 바로 안전문제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은 운영시간이 12시간 이므로 8시간씩 근무해야하는 교사는 당직으로 연장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오후 당직 근무를 하는 교사의 경우, 교사 혼자서 남은 영아를 돌봐야하며 대체나 교대해 줄 수 있는 교사의 수가 적으므로 근무시간도 길어질 수 밖에 없다(권경숙, 박지영, 2012). 이러한 이유로 담임교사가 부모참여 활동 준비에 대한 업무를 맡게 된다면 보육활동의 안전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열린어린이집 부모참여활동에 대한 부모와 보육교사의 인식을 살펴본 연구(박민정, 2020), 교사가 생각하는 열린어린이집 부모참여의 의미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이혜정, 2017)이었고, 부모와 교사가 함께 운영하는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부모참여 활동을 연구(윤우경, 2013)이었다. 이는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연구로서 본 연구의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연구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일반적 배경인 학력, 근무경력, 연령, 과목수강 여부와 연수경험에 따라 부모참여 활동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가정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참여 활동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갖고자 한다.

연구문제 1. 가정어린이집교사의 일반적 배경에 따른 부모참여 활동에 대한 교사의 인식 차이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가정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교사와 전화통화를 한 후, 본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배부하였으며, 일부 가정어린이집은 우편물로 배부함으로써 설문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가정어린이집교사 350명에게 배부하였다. 총 331명의 가정어린이집 교사들로부터 회수되어 95%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 일부문항에 응답하지 않았거나 불분명하게 응답한 17개를 제외한 314명의 응답지를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314명의 가정어린이집 교사의 일반적 배경은 고졸(68명, 31.6%), 전문대졸(101명, 93.2%), 대졸(118명, 37.6%), 대학원이상(27명, 8.6%)이었고, 담당학급 항목에서는 0세(95명, 30.2%), 만1세(90명, 28.7%), 만2세(74명, 23.6%), 혼합연령(55명, 17.5%)이었고, 근무경력 항목은 2년 미만(47명, 15.0%), 2-5년(109명, 34.7%), 6-9년이상(65명, 20.7%), 10년이상(93명, 29.6%)이었고, 교사연령 항목은 20-30세(15명, 4.8%), 31-40세(72명, 2.9%), 42-50세(173명, 55.1%), 51세이상(54명, 17.2%)이었고, 부모참여에 관한 과목수강 여부 항목은 있다(215명, 68.5%), 없다(99명, 31.5%)이었고, 부모참여에 관한 연수 여부 항목은 있다(195명, 62.1%), 없다(119명, 37.9%)이었고, 맞벌이 여부 항목은 약 25% 미만(32명, 10.2%), 약 25-50% 정도(65명, 20.7%), 약 51-75% 정도(98명, 31.2%), 76% 이상(119명, 37.9%)이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조미영(2018)의 연구에 사용된 Epstein(1998)의 5가지 부모참여인식 유형에 McBride가 부모참여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및 태도에 관한 1가지 유형을 첨가하여 McBride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도구(Parent Involvement Questionnaire)를 이경화(1991)가 우리나라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을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총 81문항으로 부모참여 활동 중 봉사활동에 관한 교사의 인식은 신뢰도가 0.853이었고, 가정에서 부모들이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신뢰도가 0.849이었고, 부모가 부모참여 활동 및 운영에 참여할 때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신뢰도가 0.857이었고, 부모참여 활동을 실행하기 어려운 점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신뢰도가 0.804이었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1) 예비조사

본 연구의 예비조사는 서울시에 소재한 가정어린이집 원장 5명과 가정어린이집교사 5명을 대상으로 2016년 4월 5일부터 4월 12일까지 일주간 진행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가정어린이집에서 다양한 부모참여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을 5명의 원장을 통해 알 수 있었으며, 교사는 부모참여 활동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을 검토하였다.

2) 본 조사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2016년 4월 18일부터 5월 17일 까지 서울지역에 소재한 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어린이집교사 3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가정어린이집에 연락을 취하여 연구의 목적을 알리고 직접방문 및 우편을 통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가정어린이집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원장 및 교사에게 연구취지와 설문지의 내용을 설명한 후, 본 연구자가 직접 배부 및 회수 하였으며 일부는 우편을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350명에게 배부하였고, 총331부가 회수되어 95%의 회수율을 보였다. 수거된 설문지 중 일부문항에 응답하지 않았거나 불분명하게 응답한 17부를 제외한 314명의 설문지를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연구문제 분석을 위하여 SPSS WIN version 20.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으며,

첫째,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문항 간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셋째, 문항 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구하였다. 넷째, 부모참여 활동 실시현황의 빈도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응답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교사의 일반적 배경(경력, 학력, 연령)에 따른 교사와 부모 간의 의사소통 빈도 차이와 부모참여 활동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교사의 일반적 배경 중 부모참여 활동에 관한 과목 수강 및 연수경험여부에 따른 교사와 부모 간의 의사소통 빈도차이와 부모참여 활동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가정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일반적 배경에 따른 부모참여 활동에 대한 교사의 인식 차이

1) 교사의 일반적 배경(학력, 경력, 연령)에 따른 부모참여 활동에 대한 교사의 인식 차이

부모참여 활동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교사의 일반적 배경 중 학력을 네 범주로 나누어 인식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1>과 같이 Levene 통계량의 유의 확률은 .264로 분산의 동질성이 확보 되었다. 집단 간 차이를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2.71$, $p<.05$)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정 결과, 고졸인 집단($N=66$, $M=2.71$) 보다 대학원이사 집단($N=66$, $M=2.85$)의 평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졸인 집단보다 대학원이상 집단에서 부모참여 활동에 대한 교사의 평균이 더 높았다.

<표 1> 교사학력에 따른 부모참여 활동에 대한 교사의 인식 차이

종속변수	독립변수	N	M	SD	Levene 통계량 (유의확률)	F	사후검정
부모참여 활동에 대한 교사의 인식	고졸a	66	2.71	0.27	.899	2.71*	a<b
	전문대졸a,b	101	2.81	0.26			
	대졸a,b	118	2.81	0.27			
	대학원이상b	27	2.85	0.30			

* p<.05

부모참여 활동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교사의 일반적 배경 중 근무경력을 네 범주로 나누어 인식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2>와 같이 Levene 통계량의 유의확률은 .483로 분산의 동질성이 확보되었다. 집단 간 차이를 본 결과,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F=3.74, p<.05$)를 보았다. 이에 따라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정 결과, 2-5년 집단($N=109, M=2.73$) 보다 10년 이상 집단($N=93, M=2.86$)의 평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무경력이 2-5년 집단보다 10년 이상 집단에서 부모참여 활동에 대한 교사인식의 평균이 더 높았다.

<표 2> 교사근무경력에 따른 부모참여 활동에 대한 교사의 인식 차이

종속변수	독립변수	N	M	SD	Levene 통계량 (유의확률)	F	사후검정
부모참여 활동에 대한 교사의 인식	2년 미만 a,b	46	2.81	0.26	.483	3.74*	a<b
	2 - 5년a	109	2.73	0.28			
	6 - 9년a,b	65	2.79	0.27			
	10년 이상b	93	2.86	0.25			

* p<.05

부모참여 활동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교사의 일반적 배경 중 연령을 네범주로 나누어 교사 인식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표 3>과 같다. Levene 통계량의 유의확률은 .264로 분산의 동질성이 확보 되었고 집단 간 차이를 살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88, p>.05$)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연령에 따라 부모참여 활동에 대한 교사인식의 평균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교사연령에 따른 부모참여 활동에 대한 교사의 인식 차이

종속변수	독립변수	N	M	SD	Levene 통계량 (유의확률)	F	사후검정
부모참여 활동에 대한 교사의 인식	20 - 30세	13	2.84	0.30	.264	.884	a<b
	31 - 40세	72	2.82	0.24			
	41 - 50세	173	2.79	0.28			
	51세 이상	54	2.75	0.27			

2) 교사의 일반적 배경(학력, 경력, 연령)에 따른 교사와 부모와 의사소통 빈도에 관한 차이

교사의 일반적 배경(학력, 근무경력, 연령)에 따른 교사와 부모의 의사소통 빈도에 관한 차이를 보기 위해 일원분산분거(ANOVA)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 <표 5>, <표 6>과 같다. ‘전혀’에 응답한 경우 1점, ‘매일’에 응답한 경우를 5점으로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빈도가 높다고 판단하였다. 분산의 동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Levene 통계량을 구하였고 Levene 통계량이 유의할 경우 분산이 동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Brown-Forsythe, Welch 통계량을 보고 집단 간에 유의한지 판단하였다. 또한 일원분산분석(ANOVA)결과가 유의한 경우 각 집단 간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Duncan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4> 교사학력에 따른 부모와 의사소통 빈도 차이

종속변수	독립변수	N	M	SD	Levene 통계량 (유의확률)	F	사후검정
부모와 의사소통 빈도	고졸a	65	2.88	0.47	.485	7.18***	a<b
	전문대졸a,b	101	2.91	0.48			
	대졸b	118	3.14	0.46			
	대학원이상b	27	3.14	0.37			

*** p<.001

부모와의 의사소통 빈도에 따른 학력의 차이를 네 범주로 나누어 의사소통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Levene 통계량의 유의확률은 .485로 분석의 동질성이 확보되었고 집단 간 차이를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7.18, p=<.001)가 나타났다. 이에 따

라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정 결과, 고졸인 집단(N= 65, M= 2.88)과 전문대졸 집단(N=101, M= 2.91)보다대졸 집단(N= 118, M= 3.14)과 대학원이상 집단(N= 27, M= 3.14)의 평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졸, 전문대졸인 집단보다 대졸, 대학원이상 집단에서 부모와의 의사소통 빈도의 평균이 더 높았다.

<표 5> 교사근무경력에 따른 부모와 의사소통 빈도 차이

종속변수	독립변수	N	M	SD	Levene 통계량 (유의확률)	F	사후검정
부모와 의사소통 빈도	2년미만 a	46	3.00	0.26	.161	6.94***	a<b
	2 - 5년 a	108	2.87	0.48			
	6 - 9년a	65	3.01	0.36			
	10년 이상b	93	3.17	0.52			

*** p<.001

부모와의 의사소통 빈도에 대한 근무경력을 네 범주로 나누어 의사소통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Levene 통계량의 유의확률은 .161로 분산의 동질성이 확보 되었고 집단 간 차이를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6.94, p< .001)가 나타났다(<표 5> 참조). 이에 따라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정 결과, 2년 미만인 집단(N= 46, M= 3.00), 2-5년 집단(N= 108, M= 2.87), 6-9년 집단(N= 65, M= 3.01)보다 10년 이상 집단(N= 93, M= 3.17)의 평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무경력이 2년 미만, 2-5년, 6-9년 집단보다 10년 이상 집단에서 부모와의 의사소통 빈도의 평균이 더 높았다.

<표 6> 교사연령에 따른 부모와 의사소통 빈도 차이

종속변수	독립변수	N	M	SD	Levene 통계량 (유의확률)	F	사후검정
부모와 의사소통 빈도	20 -30세	13	3.05	0.61	.001	.055	.071
	31 -40세	72	3.01	0.43			
	41 -50세	172	3.01	0.43			
	51세 이상	54	2.98	0.64			

*** p<.001

부모와 의사소통 빈도에 대한 연령을 네 범주로 나누어 의사소통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Levene 통계량의 유의확률은 .001로 분산의 동질성이 확보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Welch, Brown-Forsythe 통계량으로 집단 간차이를 본 결과, 두 통계량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 = .06, p > .05, F = .07, p > .05$)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연령에 따라 부모와의 의사소통 빈도의 평균에는 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3) 부모참여 활동에 관한 과목 수강 여부 및 연수경험에 따른 부모참여 활동에 대한 교사의 인식 차이

부모참여 활동에 관한 과목 수강 여부 및 연수 경험에 따른 부모참여 활동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산의 동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Levene 통계량을 구하였고 Levene 통계량이 유의할 경우 분산이 동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이분산 독립표본 T-검정을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7> 참조).

<표 7> 부모참여 활동에 관한 과목 수강 여부에 따른 교사의 인식 차이

종속변수	독립변수	N	M	SD	Levene 통계량 (유의확률)	t
부모참여 활동에 대한 교사의 인식	수강한 적 있다	212	2.82	0.27	.905	2.80**
	수강한 적 없다	99	2.73	0.27		

** $p < .01$

부모참여 활동에 관한 과목 수강 여부에 따른 교사의 인식 차이를 본 결과 Levene 통계량의 유의확률이 .905로 분산의 동질성이 확보되었고 수강여부에 따른 교사의 인식 차이를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 = 2.08, p = .01$)가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참여 활동에 관한 과목을 수강한 교사인식의 평균이 그렇지 않은 교사인식의 평균보다 0.09점 높였다.

<표 8> 부모참여 활동에 관한 연수 여부에 따른 교사의 인식 차이

종속변수	독립변수	N	M	SD	Levene 통계량 (유의확률)	t
부모참여 활동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받은 적 있다	191	2.82	0.27	.669	1.97*
	받은 적 없다	119	2.76	0.27		

* p<.05

부모참여 활동에 관한 연수 여부에 따른 교사의 인식 차이를 본 결과 Levene 통계량의 유의확률이 .669로 분산의 동질성이 확보되었고 연수 여부에 따른 교사의 인식 차이를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1.97$, $p<.05$)가 나타났다(<표 8> 참조). 따라서 부모참여 활동에 관한 연수를 받은 교사인식의 평균이 그렇지 않은 교사인식의 평균보다 0.06점 높았다.

4) 부모참여 활동에 관한 과목 수강, 연수 경험에 따른 교사와 부모와 의사소통 빈도에 관한 차이

부모참여 활동에 관한 과목 수강, 연수 경험에 따른 교사와 부모와 의사소통 빈도에 관한 차이를 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전혀’에 응답한 경우 1점, ‘매일’에 응답한 경우를 5점으로 주어 점수가 높을 수록 의사소통 빈도가 높다고 판단하였다. 분산의 동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Levene 통계량을 구하였고 Levene 통계량이 유의할 경우 분산이 동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이분산 독립표본 T-검정을 하였다. 결과는 <표 9>, <표 10>과 같다.

<표 9> 부모참여 활동에 관한 과목 수강 여부에 따른 부모와 의사소통 빈도 차이

종속변수	독립변수	N	M	SD	Levene 통계량 (유의확률)	t
부모와 의사소통 빈도	수강한 적 있다	211	3.07	0.48	.459	3.14**
	수강한 적 없다	99	2.89	0.45		

** p<.01

부모참여 활동에 관한 과목 수강여부 및 연수 경험에 따라 교사와 부모와 의사소통 빈도의 차이를 본 결과 Levene 통계량의 유의확률이 .459로 분산의 동질성이 확보되었고 수강 여부

에 따른 의사소통 빈도의 차이를 본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3.14, p<.01$)를 보였다. 따라서 부모참여 활동에 관한 과목을 수강한 교사의 인식 평균이 그렇지 않은 교사의 인식 평균보다 0.18점 높았다(<표 9> 참조).

<표 10> 부모참여 활동에 관한 연수 여부에 따른 부모와 의사소통 빈도 차이

종속변수	독립변수	N	M	SD	Levene 통계량 (유의확률)	t
부모와 의사소통 빈도	받은 적 있다	191	3.07	0.47	.635	2.70**
	받은 적 없다	118	2.92	0.48		

** $p<.01$

부모참여 활동에 관한 연수 여부에 따른 교사와 부모와 의사소통 빈도의 차이를 본 결과 Levene 통계량의 유의확률이 .635로 분산의 동질성이 확보되었고 연수 여부에 따른 의사소통 차이를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2.07, p<.01$)를 보였다. 따라서 부모참여 활동에 관한 연수를 받은 교사의 인식이 평균이 그렇지 않은 교사의 인식의 평균보다 0.15점 높았다(<표 10>참조).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가정어린이집교사의 부모참여 활동에 대한 교사의 인식 차이 연구로서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부모참여 활동에 관한 과목 수강, 연수 경험에 따른 부모참여 활동에 대한 교사의 인식 차이를 살펴보면, 부모참여 활동에 관한 과목을 수강한 교사인식 평균이 0.09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참여 활동에 관한 연수 여부에 따라 교사인식 평균이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부모참여 활동에 관한 과목을 수강하거나 연수를 받은 교사의 인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부모참여를 수강한 교사가 부모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이경화(1991)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부모참여 활동에 관한 과목 수강, 연수경험에 따른 교사와 부모와 의사소통 빈도 차이를 살펴보면, 부모참여활동에 관한 과목을 수강한 교사의 인식평균이 0.18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참여 활동에 간한 연수를 받은 교사의 인식평균이 0.15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참여를 수강한 교사들이 교사교육 과정에서의 경험에 의해 부모와 메모, 편지, 전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선호하였다는 이경화(1991)의 연구와 일맥상통한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열린 어린이집을 통한 부모참여 활동을 일부 어린이집인 국공립과 서울형 어린이집에 의무화 하고 있다.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에 부모참여활동에 대한 결과를 공지하고, 다양한 유형의 부모참여 활동을 대회 및 시상 을 통해 권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가정어린이집 교사들은 부모참여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유아교육기관의 교사들과 다르게 인식하고 있으며, 부모들의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활동 보다는 소극적 활동을 부모참여 활동으로 적합하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부모가 어린이 집의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교사의 부모참여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 및 부모의 운영참여에 대한 인식이 일괄적 이지 못하고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교사들이 부모참여 활동을 준비하지 않고, 원장이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어린이집 상황에 맞게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의 부모참여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거나 능동적으로 변화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부모참여 활동을 교사들이 실행하거나 계획조차 하지 못한 가정어린이집도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부모참여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교사의 전문성제고를 위한 재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한 조미영(2008), 김현주(2013), 문미숙(2013)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참여 활동의 어려움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서 알 수 있듯이 영아를 돌보기 때문에 잠시라도 시간을 내기 어려운 어린이집 환경과 일과 양육으로 바쁜 부모들이 시간을 내기 어려운 상황 때문이기도 하다.

‘교사의 일반적인 배경인 학력 및 근무경력과 과목수강 및 연수경험에 비례하여 부모참여 활동에 대한 교사의 인식이 높다’는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부모참여 활동에 대한 교사교육 및 연수를 통한 교사의 인식 개선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가장 선행되어야 할 문제는 부모참여에 대한 교사교육 및 연수이며 이를 통한 교사의 인식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시행하려면 영아 대 교사의 비율을 낮추어 교사에게 다양한 재교육과 연구를 위한 시간을 배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부모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주체

인 교사가 부모참여에 대한 인식의 방향을 영아뿐 아니라 부모와 교사 자신에 까지 확대하고 능동적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서울시 지역의 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를 전국적으로 일반화 시키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영아를 보육하고 교육하는 가정어린이집교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국공립, 민간, 직장, 법인 등의 다양한 기관유형에서 영아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부모참여 활동에 관한 교사의 인식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가정어린이집교사의 인식에 대한 근무여건, 급여, 근로시간 등의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지 못했다. 후속연구에서는 개별적이고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통계로 분석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연구 대상의 심층적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통계와 면담을 병행한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권경숙·박지영(2012).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의 어린이집 운영 과정 탐색. 미래유아교육학회, 19(3), 1-27
- 김현주(2013). 가정어린이집 부모교육 및 참여 실태와 원장의 인식조사연구. 서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미숙(2013). 가정어린이집의 부모교육.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민정(2020). 열린어린이집 부모참여활동에 관한 부모와 보육교사의 인식: 인천광역시 A직장어린이집.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아·신의진·이경숙(2009). 모-자녀관례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4), 549-566.
- 보건복지부(2016). 2016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3).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3-8호.
- 송효현(2013). 영아전담어린이집의 부모참여 현황과 교사의 인식. 유아교육보육연구, 17(3), 158-179.
- 윤우경(2013). 육아공동체에서 돌봄의 주체로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공동 육아어린이집 - 교사의 실천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화(1991). 부모참여에 관한 유아교육전공 학생들의 인식 및 태도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영(2017). 교사가 생각하는 열린어린이집 부모참여의 의미와 개선방안. 성신여자대학교 생애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현정(2016). 열린어린이집 실현을 위한 부모참여도와 부모참여 요구도 분석.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업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미영(2008).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부모참여 활동현황 및 교사의 인식.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희경·한유미(2016).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회지, 97, 103-123.

Abstract

The Difference of Early Childhood Teacher's Perception of Parent Participation Activities at Home-Based Child-Care Centers

Lee, Hye-ja* · Kim, Kab S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early childhood teacher's perception of parent participation activities at home-based child-care centers. For this, this study looked into the current status of parent participation activities, early childhood teacher's perception of parent participation activities, and the difference of teacher's perception according to their demographic features. A questionnaire survey of 314 early childhood teachers who were working for home-based child-care centers in Seoul was carried out. As a test tool, examine study subject's demographic features, this study carried out frequently analysis and calculated Cronbach's α . and analyze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items, descriptive statistics were carried out. In order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parent participation activities. multiple response frequency analysis was carried out. In order to examine demographic feature-oriented early childhood teacher's perception of parent participation activities, one-way ANOVA was carried out, and when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results, t-test was carried out additionally. Stud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s for demographic feature-oriented early childhood teacher's perception of parent participation activities. when teacher's academic background and career was higher, their perception was higher as well, In addition, when they took a course or had related training, their perception was higher. Based on the above study findings, it necessary for early childhood teachers at home-based child-care centers to take a course and training, thus improve their perception. This finding implies the fact that early childhood teacher's perception of parent participation activities must expand not only to the area of young children but also to the area of parents and teachers themselves, thus changing their perception positively

Key Words : home-based child-care center, parent participation activities, child care teacher

* Director of Toun Toun Child Care Center

** Professor of Sehan University